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사순 제5주일

입당 : 119 파견 : 122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시편 126, 1-2, 2-3, 4-5, 6)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겔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 오리라. ◎

◎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filled with joy.

(Psalms 126:1-2, 2-3, 4-5, 6)

-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of Zion, we were like men dreaming. Then our mouth was filled with laughter, and our tongue with rejoicing. ◎
- Then they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we are glad indeed. ◎
- Restore our fortunes, O LORD, like the torrents in the southern desert. Those that sow in tears shall reap rejoicing. ◎
- Although they go forth weeping, carrying the seed to be sown, They shall come back rejoicing, carrying their sheaves. ◎

빵과 술 (2)

바로 그렇지 않은가. 우리로서야 어찌 감히 그런 요구를 내세울 수나 있겠느냐. 독성을 하지 않고서야. 하나 하느님 몸소 그렇다고 하시니 우리도 마음으로 “웁습니다”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 불경스런 뜻은 조금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신과 조물을 분별하는 한계를 흐려 놓기라도 하려는 뜻도 전혀 있을 수 없다. 다만 당신 스스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갈망을 그대로 인정할 따름이다. 또 흥은으로 주시는 이 갈망을 기뻐할 따름이다. 그리스도는 “내 살은 참 양식이며 내 피는 참 음료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 또한 그 안에 머물리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나를 먹는 사람 또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 그를 먹어 - 살아 계신 신인을 그대로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이 엄청난 일은 우리로서는 바랄 수조차 없이 크나큰 일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음 속 저 깊이에서부터 원해야 할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신비는 빵과 술의 형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한 표현을 찾은 것이다.

빵은 양식이다. 정말로 먹여 살리는 꾸밈없는 양식이다.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실속있는 양식이다. 빵은 참되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좋다. 이런 빵의 형상으로 하느님은 우리들 인간을 위해 산 양식이 되어 주신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은 에페소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우리는 하나인 빵을 쪼개 나누어 먹습니다. 이 빵이 우리에게 불사의 영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빵은 생활하신 하느님으로 우리를 채워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게 한다.

▶ 사순특강 및 십자가의 길 안내

제5강의 주제 : 기도, 신앙인의 숨

4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4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 50분 강의 후 종교음악 감상

※ 십자가의 길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4월 6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안나회 모임

일시 : 4월 13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2025/2026 회계년도 교무금 약정 캠페인

성당의 시설유지 및 보수, 사목에 필요한 경비,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2세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모든 신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는 2025/2026 회계년도 교무금 약정 캠페인을 실시하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기간 : 3월 23일 - 4월 20일

1) 각 가정에 약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사무실에도 약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약정서 기입 후 성당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 또는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 문자, 성당카톡으로 전송해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 103skccusa@gmail.com

문자/카톡 : 310-326-4350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13,255.00

주일헌금 \$ 2,767.00

미사예물 \$ 2,560.00

합 계 \$ 18,582.00

강규형	강인모	구자운	금동군	김 용	김관기	김교복
김병록	김병학	김상규	김성현	김영재	김옥보	김충섭
김현숙	나경흠	남성철	남혜원	문성길	문향엽	민성원
박순자	박운모	박정자	박준범	배난군	서용숙	신동윤
안재만	오세원	오영섭	유경자	윤희동	이복임	이영석
이은애	이정미	이정훈	임연조	장가장	장선희	장영우
정기은	정명모	정종미	조경환	조영우	최민아	최성자
최재은	한인조	한창주	현석주			